

폭염집중 호우 대응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, 24일 전남 여주시 한우농장 찾아 폭염·집중 호우 대응 상황 점검
- 도 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 합동 현장기술지원단 파견

농촌진흥청(청장 권재한)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7월 24일, 전라남도 여주시 한우농장을 찾아 폭염과 집중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, 한우 사육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.

임 원장은 “폭염과 집중 호우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우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송풍팬 등으로 체감 온도를 낮춰줘야 사료 섭취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.”라며 “집중 호우에 대비해 축사 주변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하고 사료가 비에 젖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이어 “젖은 비로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배전함 먼지 제거,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등 전기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한우 농장 주동신 대표는 “폭염과 집중 호우도 문제지만 요즘 사료 가격은 비싸고 한우 가격은 하락해 사료비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.”라고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.

이에 임 원장은 “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,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등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농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.”라고 답했다. 아울러 “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,

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에 더욱 매진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한편, 국립축산과학원은 도 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8월까지 폭염 대응 종합 기술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.

또한, ‘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’을 통해 가축 더위지수(THI)* 예측 정보와 고온기 사양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, ‘고온기 가축 피해 예방 및 축사 환경관리 핵심기술서’를 제작·배부했다. 이 자료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(<http://www.nias.go.kr>)에서도 볼 수 있다.

*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축이 실제로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지수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진영 (063-238-7200)
		담당자	지도사	김창한 (063-238-7211)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진영 (063-238-7200)
		담당자	지도사	이경은 (063-238-7207)